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택경*

- I. 머리말
- II. 연구의 필요성
- III. 연구의 현황
- IV. 연구의 과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바다, 경계, 도시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관련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사 연구의 붐은 한국 학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공감을 얻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단히 활기를 띠고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를 해금과 쇄국이라는 '폐쇄성'에 무게를 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다. 동아시아 해양에 관한 연구가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는 폐쇄적이었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근세 동아시아 국가의 해금이나 쇄국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왔던 관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세 동아시아 각국이 해금과 쇄국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국과 타국의 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해상 경계에 관하여 한국 학계에서는 최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간 '불모지'나 다름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도시들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

*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E-mail: kktmkj@hanmail.net)

유동하였던 사회집단과 상인들의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앞으로 해항도시의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역동성과 복잡성이 좀 더 명확하게 해명될 것으로 확신한다.

주제어 : 동아시아, 해양사, 바다, 경계, 해항도시

I. 머리말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는 宋·元 時期의 ‘개방성’을 상실하고 ‘폐쇄적’으로 전환되었다. 北虜南倭와 明清交替로 상징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각국은 내륙 지향적인 海禁과 鎖國 정책을 채택하여 새로운 해역 질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적 존망을 결정짓는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 동아시아 각국은 우선 내부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는 ‘장벽’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각국의 교류와 무역은 침체되었다고 한다.¹⁾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明·淸, 조선과 일본이 바다에 대해 ‘닫힌 질서’를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같은 주변 해역에서는 오히려 교역이 활발해진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4세기 후반부터 조선,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교역을 시작했고, 중개무역지라 볼 수 있는 琉球와 말라카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상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중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직접 연결되면서 교역이 다시금 활발해진 것이었다. 더불어 이슬람의 교역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어 인도양과의 교역이 부활되었고, 유럽인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동아시아 교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²⁾

1)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서울: 민속원, 2012, 153쪽.

2)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75쪽.

이렇듯 일견 상호 모순되는 역사 해석을 지양하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건설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는 근세 동아시아의 역사를 해양의 관점, 특히 바다, 경계, 도시 세 개의 방면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³⁾

동아시아의 바다는 한국, 중국, 일본, 유구 등의 국가와 러시아의 沿海, 그리고 오호츠크해, 동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環海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바다가 여러 연해와 환해, 그리고 다수의 국가, 민족, 문화 등을 포괄하는 다원적인 요소로 구성된 광대한 해역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 연해와 환해, 海港都市(Sea Port City)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해양세계(maritime world)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조공무역이라는 ‘느슨한’ 광역의 질서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⁴⁾

한편 ‘세계의 일체화가 진행되었던 16세기를 지나 17-18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가 대외관계와 무역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내향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아갔다.⁵⁾ 이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각국의 경계의식도 점차 뚜렷해지게 되었다.

해항도시는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관계하는 직접적인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역에서 이루어진 물품교역과 문화교섭의 핵심적인 결절점이었다. 이러한 해항도시는 서로 다른 해역의 해항도시와 광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근세 동아시아 해역을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켰다.⁶⁾

3) 이하 본고에서 바다는 주로 지리적 환경과 해역질서를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4) 오모토 케이이치 외 엮음, 김정환 옮김, 『바다의 아시아: 바다의 패러다임』 1, 서울: 다리미디어, 2003, 131-152쪽.
 5)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13, 東京: 岩波書店, 1998;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김현영·문순실 옮김,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서울: 너머북스, 2014.
 6) 오모토 케이이치 외 엮음, 김정환 옮김, 『바다의 아시아: 바다의 패러다임』 1, 205-228쪽; 현재열, 「해항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언」, 『해항도시문화교섭학』 6, 2012, 220-240쪽.

본고는 상술한 바다, 경계, 도시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관련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상 세 개의 방면에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재조명해 봄으로써 향후 근세 동아시아의 해역·국가·도시 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해역질서를 구성적(constructive)으로 이해하고 해상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ions)을 파악하는 작업에 실증적·이론적인 토대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근세 동아시아 해양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하고 역동적인 역사상을 재구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II. 연구의 필요성

현재 바다, 경계, 도시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역사상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근래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를 필두로 해양에 대한 의미가 재발견되면서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⁷⁾ 동아시아 해양사와 글로벌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은의 세계적 순환에 주목하여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도와 맥락은 다르지만, 동아시아와 서구의 역사학계가 이에 공명하는 등 동아시아의 해양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⁸⁾

7)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외 옮김,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I-1·II-2·III, 서울: 까치, 2017, 2019; 페르낭 브로델, 강주현 옮김, 『지중해의 기억』, 파주: 한길사, 2012 등 참조.

8)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2003;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 외 옮김,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서울: 에코리브르, 2016;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 강선주 옮김,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세계사에서 지구사로, 역사학의 최전선』, 서울: 휴머니스트, 20

기존의 해양사 연구는 자국사를 중심으로 조공, 해금, 무역, 화교, 왜구, 해적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에 머물렀다. 하지만 해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해, 신앙, 도시 등 바다 자체에 대한 주제가 새롭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해상과 육상의 상호작용,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육상과 육상 사이의 교류 등도 중시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항해, 해상무역, 물품교역, 황당선, 해신 신앙, 항해 루트와 해난사고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전에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지금까지 거의 공백으로 남겨져 왔던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여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다양한 역사상과 그 특성이 구성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 경계 인식의 형성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로남왜와 華夷變態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내향적인 안정을 도모했다. 각국은 해금과 쇄국 등 외국과의 교역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국가적 안정을 이룩하고자 했다. 이렇듯 바다를 닫는 정책은 17~18세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시행되었는데, 이는 중·근세에 경험하였던 교역과 전쟁에 의해 각국의 자기인식이 자연스럽게 고양되었던 현상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었다.⁹⁾

동아시아 각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자국과 타국의 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의식이 점차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명·청과 조선은 鴨綠江 하구의 연해 도서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를 구분하는 문제나 월경자와 표류민의 상호 屛還 등의 사안을 놓고 빈번하게 협상했다. 또 康熙 연간에는 開海政策으로 야기된 중국 荒唐船의 조선해역 출몰문제로 조선과 청 사이에는 경계 관념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 간에도 남해지역과 쓰시마 섬을 해역의

10; 조지형·김용우 편, 『지구사의 도전』, 파주: 서해문집, 2010; 하네다 마사시, 이수열 역, 『새로운 세계사- 지구시민을 위한 구상』, 서울: 선인, 2014; 미야자키 마사카쓰, 이수열 외 옮김, 『바다의 세계사』, 서울: 선인, 2017; 하세봉,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역사와경계』 101, 2016 등 참조.

9) 모모키 시로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166-173쪽.

경계로 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과 타국을 구분하는 경계 인식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셋째, 동아시아 해항도시 간의 물자교역과 문화교섭의 구체적인 사례와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해역이라는 광역의 공간에서 인간, 상품, 화폐, 정보의 흐름은 결국 해항도시에 합류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항도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⁰⁾

근세 동아시아에서 해항도시는 인적교류와 물자교역의 허브이자 거점이었으며, 외부세계와 지역문화가 융합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었던 장소였다. 해항도시는 하나의 국가와 지역에 속하지만, 바다로 연결된 외부세계에도 속했다. 해항도시는 자신이 소속된 국가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흐름이 표출되는 공간인 동시에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여러 흐름이 결집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해항도시의 특수한 장소적 위상은 역사가들에게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해항도시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인 위상의 도시로부터 출발하여 그 인적·물적 교역의 양상을 실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현황

주지하다시피 일본 학계는 오랫동안 아시아 해역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축적해 왔다. 근래에는 견실한 연구성과와 두터운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해역 아시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寧波 프로젝트’와 같은

10) 현재열, 「해항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언」; 정문수, 「방법론적 해항도시와 해역연구」, 『동북아 해역과 인문 네트워크』, 서울: 소명출판, 2018; 정문수 외,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 방법론』, 서울: 선인, 2014 등 참조.

대규모의 학제간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과 프로젝트’의 성과는 ‘東アジア海域叢書’ 시리즈로 총 20권이 간행될 예정이다. 최근 공간된 성과 중 第1卷 『近世の海域世界と地方統治』, 第2卷 『海域交流と政治権力の対応』, 第4卷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 第11卷 『寧波と博多』, 第14卷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는 해역질서와 해항도시를 주제로 하는 본고와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아 크게 주목된다.¹¹⁾

일본의 해역아시아사연구회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의 제1편 제1부 중세 부분과 제2~3부 근세 부분은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고 관련 연구를 세심하게 비평하여 본고를 구상하는 데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시대별 흐름을 개관한 총론과 개별 주제를 초점으로 하는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의 저자들은 아시아 해양사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의 해역교류가 활성화되고 유라시아 규모의 교류권이 성립하는 9~10세기부터 14세기경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시기를 중세로, “대항해시대로 시작하는 ‘세계의 일체화’ 등 직접적인 의미에서 ‘근대의 서곡’이 시작되었던 15~17세기를 다루는” 시대를 근세 전기(14세기 후반~17세기 초엽)로, “대항해시대 종료 후에 각각의 지역에서 ‘전통사회’가 응집·성숙하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를” 근세 후기(17세 중엽)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중화제국과 주변 국가의 질서, 외교시스템, 상품의 교역, 상인의 무역활동과 네트워크, 해항도시, 해적, 이민과 디아스포라, 문화·종교·기술·정보의 전파 및 교류 등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와 관

11) 山本英史 編 『近世の海域世界と地方統治(東アジア海域叢書 第1卷)』, 東京: 汲古書院, 2010; 井上徹 編 『海域交流と政治権力の対応(東アジア海域叢書 第2卷)』, 東京: 汲古書院, 2011; 吉尾寛 編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アジア海域叢書 第4卷)』, 東京: 汲古書院, 2011; 中島樂章・伊藤幸司 編 『寧波と博多(東アジア海域叢書 第11卷)』, 東京: 汲古書院, 2013; 森平雅彦 編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東アジア海域叢書 第14卷)』, 東京: 汲古書院, 2013.

12)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련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제2편 ‘각론’ 부분도 여러 면에서 참조가 된다. 港市社會論, 도자기 무역, 해산물 교역, 조선 기술, 항해신, 표류·해난 등은 본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들이기도 하다.¹³⁾

이밖에 최근 일본 학계의 동아시아 해역교류사 연구현황을 파악하는데에는 伊東貴之의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海域交流史研究の現状と動向」 등이 유용하다. 또 김연옥의 「일본 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도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과 『史學叢誌』를 토대로 일본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¹⁴⁾

최근 한국 출판계에서 해양이 키워드가 되면서 학계의 해양사 연구도 크게 진작되었다. 주경철의 『대항해시대』와 『문명과 바다』의 출판 이래 최근 주강현의 『조선 사람 표류기』와 『환동해 문명사』에 이르기까지 해양 관련 도서가 출판계에서 ‘봄’을 형성하였다.¹⁵⁾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들이 해양 관련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계속 출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양사학계에도 그대로 이어져 동양사학회는 2014년 ‘동아시아의 바다, 그 열린 공간과 교류’를 주제로 동계연구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제와 시기를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로 좁혀서 보았을 때, 한국의 해양사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전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성과는 대체로 고·중세사에 집중되었다. 반면 근세의 경우 임진왜란이나

13)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14) 伊東貴之,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海域交流史研究の現状と動向」, 『江南文化と日本: 資料・人的交流の再発見』, 京都: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International Symposium in Shanghai, 2012.3; 김연옥, 「일본 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15)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주경철, 『문명과 바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 서울: 산치림, 2009; 주강현, 『조선 사람 표류기』, 서울: 나무를심는사람들, 2013; 주강현, 『환동해 문명사』, 파주: 돌베개, 2015.

왜구, 표류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주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해양사의 '성장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론'을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구상하는 노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증적인 연구가 그에 걸맞게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조공책봉론, 아시아 교역권론, 글로벌 히스토리 등 중국과 일본, 서구의 동아시아 관련 담론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역량이 '비판'과 '구상'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¹⁶⁾ 앞으로 한국 학계의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이론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일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 위에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관련 담론과 이론에 경주해오면서 이론적인 토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무엇보다 바다가 재인식되면서 근세 동아시아 해양을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근래 오모토 케이이치(尾本恵市) 등이 집필한 『바다의 아시아』 1~6,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의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의 『대분기』, 차우두리(Kirti N. Chaudhuri)의 『유럽 이전의 아시아-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하야미 아키라(速水融)의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스기하라 카오루(杉原薫)의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구로다 아키노부(黒田明伸)의 『화폐시스템의 세계사』,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와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의 공저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의 『리오리엔트』 등 동아시아 해양사의 가능성을 기늴해 볼 수 있는 일본과 중국, 서구의 근세 아시아 해양사의 주요 저서들이 계속 출판되

16) 고은미, 「글로벌 히스토리와 동아시아론 일본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 2016; 박혜정, 「지구사적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역사학보』 214, 2012; 하세봉,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등 참조.

고 있어 동아시아 해양사의 이론적 지평이 확대되었다.¹⁷⁾

그리고 강진아는 최근 일련의 이론적인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론, 캘리포니아학과, 글로벌 헤게모니론, 식민지근대화론 등 동아시아 해양사가 태동하는 데에 영감을 주었던 서구와 일본의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또 조영현의 「후기 중화제국 해양사 연구의 최근 흐름과 글로벌 히스토리-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제언」은 명·청 시대 해양사 연구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¹⁸⁾

조공체제론을 비롯하여 기존 해역질서 이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정치한 비판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을 잠시 논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근세 동아시아 해역질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조공체제론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다. 동

17) 오모토 케이이치 외 엮음, 김정환 외 옮김, 『바다의 아시아』 1-6, 서울: 다리미 디어, 2003, 2005; 무라이 쇼스케, 손승철 외 옮김,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서울: 경인문화사, 2008; 하마시타 다케시, 서광덕·권기수 옮김, 『조공 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2018; 케네스 포머란츠, 김규태 외 옮김,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초두리, 임민자 역, 『유럽 이전의 아시아- 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서울: 심산, 2011; 하야미 아키라, 조성원 외 옮김,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역사인구학으로 본 산업혁명 vs 근면혁명』, 서울: 혜안, 2006; 스기하라 카오루, 박기주 옮김,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서울: 전통과 현대, 2002;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옮김, 『화폐시스템의 세계사: ‘비대칭성’을 읽는다』, 서울: 논형, 2005;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김현영·문순실 옮김,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이외에도 재닛 아부 루고드, 박홍식 역, 『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계체제』, 서울: 까치, 2006; 티모시 브룩, 조영현·손고은 옮김, 『셀던의 중국지도: 잃어버린 항해도, 향료무역 그리고 남중국해』, 서울: 너머북스, 2018; 하네다 마사시 엮음, 조영현·정순일 옮김, 『바다에서 본 역사』, 서울: 민음사, 2018 등 참조.

18) 강진아, 「16-19세기 중국경제와 세계체제- 19세기 분기론과 중국중심론」, 『이화사학연구』 31, 2004; 강진아, 「16~19세기 동아시아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강진아, 「동아시아로 쓴 세계사- 포머란츠와 캘리포니아 학파」, 『역사비평』 82, 2008; 강진아, 「중국의 부상과 세계사의 재조명- 캘리포니아 학파에서 글로벌 헤게모니론까지」, 『역사와경계』 80, 2011; 조영현, 「후기 中華帝國 海洋史 연구의 최근 흐름과 글로벌 히스토리-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제언」, 『민족문화연구』 77, 2017 등 참조.

아시아의 대외관계와 교역을 ‘중심’-‘주변’ 구조로 설명하는 조공체제론은 많은 연구자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조공체제론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교역을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틀로 받아들여져 왔다.¹⁹⁾

하지만 최근 조공체제론은 여러 방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조공체제론이 실증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중국 중심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공체제론은 향후 근세 동아시아 해역질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공을 정태적인 ‘체제’로 해석하는 방식 즉, 완결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데에서 벗어나 종주국과 조공국이 해당 시기에 처한 관계 속에서 빚어진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는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대외관계와 교역을 국가 단위의 조공만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보다는 국가는 물론 민간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유동적·다차원적 권력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夫馬進의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對류큐 외교- 동아시아 4개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구범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차혜원의 「유동적 역사공간: 근세 동아시아로의 접근」, 홍성구의 「조공무역체제론의 재검토: 해관무역체제론을 위한 시론」 등의 성과를 특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다.²⁰⁾

19) 대표적으로 西島定生,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하마시타 다케시, 서광덕·권기수 옮김,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참조.

20) 夫馬進,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對류큐 외교- 동아시아 4개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이화사학연구』 37, 2008; 구범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차혜원, 「유동적 역사공간: 근세 동아시아로의 접근」, 『역사비평』 79, 2007; 홍성구, 「조공무역체제론의 재검토: 해관무역체제론을 위한 시론」,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 참조.

지금까지 명·청 시대의 해금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지선의 「명대 해금정책 연구」와 이문기 등의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만을 대표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²¹⁾ 최근 18~19세기 조선 실학자들의 대외인식과 경계의식, 해방의식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들은 동아시아 해양사의 견지에서 보면 다시금 활용이 가능한 지적 자원일 것이다.

원정식은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과 國家權力」, 「清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등에서 명·청 왕조의 해양정책과 해역질서를 복건성이라는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홍성화는 서양 선교사가 남긴 여행기와 관련 기록들이 이용하여 16세기 동아시아 해역질서에 대해 살펴보았다.²²⁾

한국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세 동아시아 표류민 연구²³⁾는 표류민의 송환이 임시방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류민의 송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훈의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가 있다. 또 『韓國學論集』(제45집)의 ‘특집: 표류기(漂流記)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문화접촉(文化接觸)’에 게재된 성과들은 동아시아 삼국 학계의 표류민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리고 최근 정성일은 1662~1663년 김여회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를 실증하였다.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 연구에 관한 동향은 김경옥의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와 최성환의 「표류기

21) 한지선, 「明代 海禁政策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문기,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아울러 민덕기, 「중·근세 동아시아의 海禁정책과 境界인식」, 『동아시아해역의 해항도시와 문화교역: 해역질서·역내교역』 1, 서울: 선인, 2018 등도 참조.

22) 원정식,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과 國家權力」, 『명청사연구』 13, 2000; 원정식, 「清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동양사학연구』 81, 2003; 홍성화, 「16세기 중엽 포르투갈인들이 본 동아시아 해상질서」, 『사림』 49, 2014.

23) 하세봉, 「한국과 중국학계 해양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8.10, 7쪽.

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가 유용하다.²⁴⁾

해역질서의 기저를 형성하는 동아시아 바다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경규는 마조신앙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고혜련은 『天妃顯聖錄』을 통해 동중국해의 마조신앙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인범이 ‘東アジア海域叢書’ 시리즈의 제4권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에서 연행록 기록을 통해 실증한 조선의 천비신앙에 대한 사례 연구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주제이다.²⁵⁾

종래 한국 학계에서 동아시아 해양의 경계에 관한 연구는 ‘불모지’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한임선·신명호, 서인범, 한문중, 민덕기, 손승철 등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임선과 신명호는 조선시대에는 봉수대에서 보이는 水宗(수평선)을 해양경계선(內洋과 外洋)으로 삼았고 이것이 ‘해금’ 개념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인범은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 영토분쟁」,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등에서 서해 해역에 대한 경계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실증하였다. 한문중과 민덕기, 손승철도 각각 「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경계에서의 분쟁」, 「중·근세 조선인의

24)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서울: 국학자료원, 2000; 『韓國學論集』 45, 2009; 정성일, 「해남 선비 김여회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김경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 『명청사연구』 48, 2017; 최성환,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2018.5.

25) 최근 마조를 비롯하여 해신신앙과 관련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기한 성과들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경규, 「중국에서의 마조신앙의 성립과 발전에 관하여」, 『중국사연구』 68, 2010; 고혜련, 「東中國海의 媽祖信仰: 天妃顯聖錄을 통해 본 마조 일화와 그 성격」, 『島嶼文化』 25, 2005; 徐仁範, 「朝鮮使行의 海路朝貢路と海神信仰-『燕行錄』의 分析を通して」,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アジア海域叢書 第4卷)』, 東京: 汲古書院, 2011. 마조신앙에 관한 연구사는 상기숙, 「關於韓國 媽祖研究史的考察」, 『中國學論叢』 40, 2013 참조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등에서 조·일의 해역 경계 인식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였다. 정은주의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후기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 지도를 통해 해역 인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²⁶⁾

과거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교역 및 교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무역사와 문화교류사 연구가 그러했다. 무역사와 문화교류사는 주로 물품이나 콘텐츠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해항도시의 교역과 문화교섭 연구는 교류와 관계되는 모든 과정, 즉 물품과 콘텐츠를 포함하여 내륙과 해항도시 자체의 변화와 역동성을 시야에 두고 있다. 조선과 중국, 일본, 유구 등 국가와의 무역과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성과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교류가 가능했던 원동력과 조건, 그것이 해당 도시와 지역, 국가에 미친 영향 등이 더불어 밝혀진다면 교역과 네트워크의 결절점인 해항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열의 「해항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언」은 해항도시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한 개념의 정의는 해양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기도 하다. 근래 번역, 출판된 『17~18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의 서론에서 편자인 하네다 마사시는 해항도시 비교연구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

26) 한임선·신명호, 「조선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서인범,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 영토분쟁」, 『명청사연구』 26, 2006;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2011; 서인범,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이화사학연구』 50, 2011; 한문중, 「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정은주,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후기 연안 및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고지도연구』 3(2), 2011.

어 해항도시의 비교연구에 참조할 만하다. 그는 인도양 해역세계와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비교하면서 사파비 왕조와 인도양 해역세계의 정치세력들이 ‘자유방임’ 정책을 채택했던 반면,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국가들은 해양무역의 상업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음을 밝히면서, 국가가 해양무역에 개입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특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⁷⁾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현황은 하세봉의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한임선의 「한국해양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등이 시대와 분야별로 연구사를 망라하여 매우 유용하다.²⁸⁾

중국의 해양사 연구는 1996년 <유엔해양법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고 국가 차원에서 해양발전전략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연구의 출범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 중국의 해양사 학계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해양사를 연구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학술단체를 잠시 열거해보면 廈門大學, 中國海洋大學, 武漢大學 中國邊界研究院, 廣東海洋史研究中心, 復旦大學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한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등은 『中國海洋文化研究』, 『海交史研究』, 『海洋史研究』, 『國家航海』 등의 해양사 관련 전문학술지를 간행하고 있다.²⁹⁾

하지만 최근 중국 해양사 학계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여전히 ‘환중국해’에

27) 현재열, 「해항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언」; 하네다 마사시 역음, 현재열·김나영 옮김, 『17~18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 서울: 선인, 2012.

28)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3, 2010; 한임선, 「한국해양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이외에도 하세봉, 「한국과 중국학계 해양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8.10; 河世鳳, 「近年來韓國海洋史研究概況」, 『海洋史研究』, 2016-1; 黃普基, 「民族海洋與海洋民族: 近代以來的韓國海洋史研究」, 『全球史評論』 第15輯, 2018-2 등을 참조.

29) 조세현,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중국사연구』 96, 2015, 267-270쪽.

서의 海防·海疆·島嶼·海權과 무역, 화교 이민 등 중국 중심의 주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중국의 해양연구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도 이미 해양사와 글로벌 히스토리의 연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해양사 연구 동향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⁰⁾

대만에서도 해양사 연구는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中央研究院은 일찍이 1983년 중국해양발전사 연구에 착수하여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시리즈를 계속 출판하고 있다. 또 曹永和文教基金會議의 지원에 힘입어 ‘臺灣史와 海洋史’ 시리즈를 출판하는 등 대만사 중심의 해양사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臺灣海洋大學 海洋文化研究所에서는 『海洋文化學刊』과 ‘海洋文化研究叢書’와 같은 논문집을 간행하고 있으며, 臺灣研究基金會에서도 ‘海洋과 臺灣’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國立 清華大學 人文社會研究中心 등 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季風亞洲研究』라는 해양사 전문잡지를 창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만에서의 해양사 연구 ‘붐’은 ‘중국사’에서 ‘대만사’로 역사학 연구의 중심이 이동한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³¹⁾

이상 중국과 대만의 해양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조세현의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 중국의 형성』의 서론, 『해양대만과 대륙중국』의 제4장 보론과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중국해양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해양을 통해 본 대만사- 대만학계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³²⁾ 중국의 연구현

30) 하세봉, 「최근 중국학계의 해양사 연구: 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2014년 제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014.8, 116-118쪽; 조세현,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266쪽.

31) 조세현,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273쪽.

32) 조세현,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 중국의 형성』, 서울: 일조각, 2016; 조세현, 『해양대만과 대륙중국』, 부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7; 조세현,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조세현, 「중국해양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대만학계의 연구성과를

황 성과로는 蘇全有·常城의 「對近代中國海洋史研究的反思」, 姜旭朝·張繼華의 「中國海洋經濟歷史研究: 近三十年學術史回顧與評價」, 常城의 「近代中國海洋社會經濟史研究述評」, 安成浩의 「中日韓海洋文化研究動向與展望」, 張麗·任靈蘭의 「近五年內中國的海洋史研究」 등이 참조할 만하다.³³⁾

중국과 대만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半省堂’(<http://www.maguang.net/>), ‘海交史’(<http://haijiaoshi.com/>), ‘海洋史工作室’(<http://blog.sina.com.tw/maritime/>) 등의 사이트는 중국과 대만은 물론 동아시아 해양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20세기 서구에서 아시아 해양사의 연구는 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프랑크와 포메란츠, 왕(Roy Bin Wong) 등으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학파가 은의 지구적 순환에 주목하여 17~18세기 동아시아 해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상정하고 글로벌 히스토리 연구를 제창한 이후 서구 학계에서도 이에 공명하며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³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뮌헨대학교 동아연구소는 2002년부터 <동

중심으로」, 『중국학』 53, 2015; 조세현, 「해양을 통해 본 대만사— 대만학계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8, 2016.

33) 하세봉, 「최근 중국학계의 해양사 연구: 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하세봉, 「한국과 중국학계 해양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8.10; 姜旭朝·張繼華, 「中國海洋經濟歷史研究: 近三十年學術史回顧與評價」, 『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5; 常城, 「近代中國海洋社會經濟史研究述評」,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2011-6; 蘇全有·常城, 「對近代中國海洋史研究的反思」, 『大連海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6; 安成浩, 「中日韓海洋文化研究動向與展望」, 『社會科學戰線』, 2014-2; 楊芹, 「2018年中國海洋史研究綜述」, 『海洋史研究』 13,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9; 張麗·任靈蘭, 「近五年來中國的海洋史研究」, 『世界歷史』, 2011-1; 河世鳳, 「解讀中國海洋史研究」, 『國家航海』 1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34) 각주 8번과 凱瑟琳 施韋爾特納 等, 「海洋史的未來: 邁向全球海洋史研究計劃」, 『全球史評論』 第14輯, 2018-1 등을 참조.

아시아의 ‘지중해’ 1500~1800(The East Asian ‘Mediterranean’, c. 1500~1800)>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전통시대 중국 자료를 통해 본 해상공간(Maritime Space in Traditional Chinese Sources : From Earliest Times to the Mid-Nineteenth Century)>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³⁵⁾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기록보관소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관한 역사연구를 증진하는 일련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tanap.net/>).

최근 Xing Hang은 17~18세기 명·청교체 시기의 동아시아 해상의 상업을 연구하여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1620-1720*를 출판하였다. 한편 일본학자들의 영어권 출판계로의 약진도 눈에 띈다. 2015년 말 튀빙겐대학의 Keiko Nagase-Reimer와 마츠우라 아키라, 리우쉬핑 등은 17~18세기 중국과 일본의 구리 동전 무역을 다룬 저서 *Copper in the Early Modern Sino-Japanese Trade*를 영문으로 출판하였다.³⁶⁾

Wang Sixiang의 「영미 학계에서의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 동향- 비교사적 역사와 초국가적 역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와 馮立軍의 「21世紀以來國外亞洲海洋史研究的新進展-以英語學界的研究爲中心」은 각각 최근 서구의 동아시아 외교사와 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다.³⁷⁾

35) 정병철, 「전통시대 중국 자료를 통해 본 해상 공간」, 『중국사연구』 37, 2005, 414쪽.

36) Hang Xing,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1620-1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Keiko Nagase-Reimer ed., *Copper in the Early Modern Sino-Japanese Trade*, Leiden: Brill, 2016.

37) Wang Sixiang, 「영미 학계에서의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 동향- 비교사적 역사와 초국가적 역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00, 2016; 馮立軍, 「21世紀以來國外亞洲海洋史研究的新進展-以英語學界的研究爲中心」, 『史學理論研究』, 2018-2.

IV. 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역사는 주로 대륙의 관점에서, 특히 농경 문명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역사에는 대륙과 농경 문명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륙의 저편에서는 연해와 도서를 포괄하는 바다가 다른 국가와 지역, 도시와 연결되어 있었다. 바다는 동아시아 각국을 상호 연동시키는 중요한 무대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해양세계의 중요성이 20세기 후반 뒤늦게 자각된 이래 일본과 중국, 서구 학계에서는 이를 조명하는 연구가 봇물이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아울러 학제적 체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삼국과 대만, 오키나와, 팽호 열도를 포함하는 해역을 ‘環中國海’라고 명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해역을 ‘環日本海’와 ‘環中國海’ 두 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계사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을 중심으로 해역을 설정하고, 이들 해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작업에 분주해 있다.

해양사 연구의 붐은 한국 학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공감을 얻으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단히 활기를 띠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근세 이후 특히 근세 시기의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소재와 한정적인 주제에 머물러 있다.³⁸⁾ 기존 대외관계사, 무역사, 왜구와 임진왜란, 표류 등 일부 영역과 소재, 사건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개척 분야가 산적해 있다.³⁹⁾

38) 하세봉,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14쪽.

39) 이러한 측면에서 근세 동아시아의 물품교역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기시모토 미오, 노영구 옮김, 『동아시아의 근세』, 서울: 와이즈플랜, 2018;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

주지하다시피 해양사 연구에서는 광역을 다루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일국사를 넘어서는 다양한 관점의 공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양사 연구 자체가 일국사나 국민국가의 ‘동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해양사 역시도 정치적 ‘동원’에 이용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일국사 안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근래 동아시아의 해역질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조공체제론’이나 ‘해상실크로드’, ‘아시아 교역론’ 등의 저변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되어 있다. 이들 논의는 동아시아 해양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중심적인 입장에서 근세 이후 동아시아 해양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 일국사적인 편향을 극복하고 대안적 역사서술을 지향하는 해양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반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중심’-‘주변’의 위계적인 틀에 집착하여 동아시아 해양사를 바라본다면 평면적이고 편향된 해석이 부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역사는 다시금 구성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주변’으로 인식해 왔던 국가와 다양한 주체들의 위상과 역할이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가 재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근세 동아시아 해양의 역사상을 인식하는 데에 의존해 왔던 기존 이론들을 다시금 검토하고, 새로운 인식의 방법을 구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 지역, 도시의 상호비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⁴⁰⁾ 시기를 근세로 한정해서 말해보면, 조선의 해양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과 비교를 진행하고, 다시 권역을 확대하여 이

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2018 등을 참조.

40) 현시점에서는 ‘일국사’나 ‘대륙사’의 협소한 범주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표피적으로 소비하는 자세도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를 다른 권역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관되고 연동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비교를 통해 얻어진 역사상을 근거로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가 재구성되었을 때, 비로소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면서도 각각의 개별적 주체가 공명하는 인식의 틀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동향을 바다, 경계, 도시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를 ‘폐쇄성’에 무게를 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다. 동아시아 해양에 관한 연구가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근세 동아시아의 바다는 폐쇄적이었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의 역동적인 측면이 좀 더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근세 동아시아 국가가 해금이나 쇄국 등을 통해 바다에 대해 닫힌 질서를 구현했었던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왔던 관점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해금과 쇄국은 국내외적 정세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다. 또 해금과 쇄국의 역사 그 자체에서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⁴¹⁾

근세 동아시아 각국이 해금과 쇄국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국과 타국의 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명·청과 조선 간에는 서해 북단의 경계 문제나 월경자와 표류민의 상호 刷還, 황당선 출몰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 간 경계 관념이 형성되었다. 조선과 일본 간에도 쓰시마 섬을 양국 해역의 경계로 삼는 것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41) 하세봉,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23쪽.

해상 경계에 관하여 한국 학계에서는 최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간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향후 후속 세대의 연구에 견실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근세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네트워크 연구는 여전히 미개척지나 다름이 없다. 동아시아와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해항도시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해항도시는 동아시아 해양세계 네트워크의 거점이다.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출구이자 창구인 셈이다. 해항도시들은 국가적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 유동하였던 사회집단과 상인들의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또 이러한 해항도시들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지역, 정치세력과 상인집단, 도시와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앞으로 해항도시의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세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역동성과 복잡성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한국의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독자적인 시각과 이론의 구축이 절실하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담론이 창성하고 해양이 재인식됨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해양사 연구의 이론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역내에서 해양사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 학계는 ‘일국사 넘어서기’, ‘아시아 해역의 독자성’을 주창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역 아시아사의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환중국해’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사 연구를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시각과 관점에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한국이 바라보는 동아시아 해역의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역의 ‘주변’ 국가와 지역, 민간의 활동이 가지는 위상을 재정립하고, 다시 권역을 주변 해역과 세계로 넓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장려하여 실증적인 성과를 보다 축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후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표상적으로 논하는 공허한 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비

판적인 이론의 수용과 실증 연구의 수행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사 연구자는 단순히 문헌만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현장'에 직접 나아가 광역의 해양세계를 자각적으로 체험할 필요도 있다. 이에 해양사 연구는 문헌의 실증과 실제적인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저자의 문제의식이 비로소 독자로부터 공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이론과 체험이 동시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 강진아, 「16~19세기 중국경제와 세계체제- 19세기 분기론과 중국중심론」, 『이화사학연구』 31, 2004.
- 강진아, 「16~19세기 동아시아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 강진아, 「동아시아로 쓴 세계사- 포모란츠와 캘리포니아 학파」, 『역사비평』 82, 2008.
- 강진아, 「중국의 부상과 세계사의 재조명- 캘리포니아 학파에서 글로벌 세계모니論까지」, 『역사와경계』 80, 2011.
- 고은미, 「글로벌 히스토리와 동아시아론- 일본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 2016.
- 고혜련, 「東中國海의 媽祖信仰: 天妃顯聖錄을 통해 본 마조 일화와 그 성격」, 『島嶼文化』 25, 2005.
-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옮김, 『화폐시스템의 세계사: '비대칭성'을 읽는다』, 서울: 논형, 2005.
- 구범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제언과 모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기시모토 미오, 노영구 옮김, 『동아시아의 근세』, 서울: 와이즈플랜, 2018.
-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김현영·문순실 옮김,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서울: 너머북스, 2014.
- 김경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 『명청사연구』 48, 2017.
-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연구사 검토」, 『지역과 역사』 31, 2012.
- 김연옥, 「일본 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 14세기 후반~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서울: 민속원, 2012.
- 무라이 쇼스케, 손승철 외 옮김,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서울: 경인문화사, 2008.
- 미야자키 마사카쓰, 이수열 외 옮김, 『바다의 세계사』, 서울: 선인, 2017.
-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 민덕기, 「중·근세 동아시아의 海禁정책과 境界인식」, 『동아시아해역의 해양도시와 문화교역: 해역질서·역내교역』 1, 서울: 선인, 2018.
- 박혜정, 「지구사적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
-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역사학보』 214, 2012.
- 夫馬進,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對류큐 외교— 동아시아 4개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이화사학연구』 37, 2008.
- 상기숙, 「關於韓國媽祖研究史的考察」, 『中國學論叢』 40, 2013.
- 서인범,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 영토분쟁」, 『명청사연구』 26, 2006.
-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2011.
-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2018.
- 서인범,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이화사학연구』 50, 2011.
-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2003.
- 원정식, 「명청시대 복건의 상인과 국가권력」, 『명청시대 복건의 상인과 국가권력』, 『명청사연구』 13, 2000.
- 스기하라 카오루, 박기주 옮김,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서울: 전통과현대, 2002.

- 심민정, 「한일해양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 오모토 케이이치 외 엮음, 김정환 외 옮김, 『바다의 아시아』 1-6, 서울: 다리미디어, 2003, 2005.
- Wang Sixiang, 「영미 학계에서의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 동향- 비교사적 역사와 초국가적 역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00, 2016.
- 원정식,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과 國家權力」, 『명청사연구』 13, 2000.
- 원정식, 「淸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동양사학연구』 81, 2003.
- 이경규, 「중국에서의 마조 신앙의 성립과 발전에 관하여」, 『중국사연구』 68, 2010.
-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이준갑, 「명청교체기의 청과 유구- 청조의 제일차 유구 사행 파견과 정사 장학례의 사행활동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9, 2013.
- 이 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서울: 국학자료원, 2000.
- 재닛 아부 루고드, 박흥식 역, 『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계체제』, 서울: 까치, 2006.
- 정문수, 「방법론적 해항도시와 해역연구」, 『동북아 해역과 인문 네트워크』, 서울: 소명출판, 2018.
- 정문수 외,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 방법론』, 서울: 선인, 2014.
- 정병철, 「전통시대 중국 자료를 통해 본 해상 공간」, 『중국사연구』 37, 2005.
- 정성일, 「해남 선비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 정은주,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후기 연안 및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고지도연구』 3(2), 2011.
- 조세현, 「‘河殤’에서 ‘走向海洋’으로- 중국학계의 근대해양사 연구현황」, 『중국사연구』 96, 2015.
- 조세현, 「중국해양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대만학계의 연구성과를

- 중심으로」, 『중국학』 53, 2015.
- 조세현, 「해양을 통해 본 대만사— 대만학계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8, 2016.
- 조세현,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 중국의 형성』, 서울: 일조각, 2016.
- 조세현, 『해양대만과 대륙중국』, 부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7.
- 조영현, 「후기 中華帝國 海洋史 연구의 최근 흐름과 글로벌 히스토리— 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제언」, 『민족문화연구』 77, 2017.
- 조지형·김용우 편, 『지구사의 도전』, 파주: 서해문집, 2010.
- 주강현, 『조선 사람 표류기』, 서울: 나무를심는사람들, 2013.
- 주강현, 『환동해 문명사』, 파주: 돌베개, 2015.
-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주경철, 『문명과 바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 서울: 산처럼, 2009.
- 차혜원, 「유동적 역사공간— 근세 동아시아로의 접근」, 『역사비평사』 79, 2007.
- 최성환,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2018.5.
- 쵸두리, 임민자 역, 『유럽 이전의 아시아— 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서울: 심산, 2011.
- 케네스 포메란츠, 김규태 외 옮김,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서울: 에코리브르, 2016.
- 티모시 브룩, 조영현·손고은 옮김, 『셀던의 중국지도: 잃어버린 항해도, 향료무역 그리고 남중국해』, 서울: 너머북스, 2018.
-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 강선주 옮김,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세계사에서 지구사로, 역사학의 최전선』, 서울: 휴머니스트, 2010.
- 페르낭 브로델, 강주헌 옮김, 『지중해의 기억』, 파주: 한길사, 2012.
-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외 옮김,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I-1·II-2·III, 서울: 까치, 2017, 2019.
- 하네다 마사시, 이수열 역, 『새로운 세계사— 지구시민을 위한 구상』, 서

- 울: 선인, 2014.
- 하네다 마사시, 이수열·구지영 옮김,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서울: 선인, 2012.
- 하네다 마사시 엮음, 조영현·정순일 옮김, 『바다에서 본 역사』, 서울: 민음사, 2018.
- 하네다 마사시 엮음, 현재열·김나영 옮김, 『17~18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 서울: 선인, 2012.
- 하마시타 다케시, 서광덕·권기수 옮김,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2018.
-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3, 2010.
- 하세봉, 「최근 중국학계의 해양사 연구: 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2014년 제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014.8.
- 하세봉,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역사와경계』 101, 2016.
- 하세봉, 「한국과 중국학계 해양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8.10.
- 하야미 아키라, 조성원 외 옮김,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역사인구학으로 본 산업혁명 vs 근면혁명』, 서울: 혜안, 2006.
- 한문중, 「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 한임선, 「한국해양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 한임선·신명호, 「조선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 한지선, 「明代 海禁政策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현재열, 「해항도시 개념과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의 방향성: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언」, 『해항도시문화교섭학』 6, 2012.
- 홍성구, 「조공무역체제론의 재검토: 해관무역체제론을 위한 시론」,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홍성화, 「16세기 중엽 포르투갈인들이 본 동아시아 해상질서」, 『사림』

- 49, 2014.
- 홍석준, 「동아시아의 해양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도서문화』 29, 2007.
- 姜旭朝·張繼華, 「中國海洋經濟歷史研究: 近三十年學術史回顧與評賞」, 『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5.
- 凱瑟琳 施韋爾特納 等, 「海洋史的未來: 邁向全球海洋史研究計畫」, 『全球史評論』 第14輯, 2018-1.
- 常 城, 「近代中國海洋社會經濟史研究述評」,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2011-6.
- 蘇全有·常城, 「對近代中國海洋史研究的反思」, 『大連海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6.
- 安成浩, 「中日韓海洋文化研究動向與展望」, 『社會科學單線』, 2014-2.
- 楊 芹, 「2018年中國海洋史研究綜述」, 『海洋史研究』 13,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9.
- 張麗·任靈蘭, 「近五年來中國的海洋史研究」, 『世界歷史』, 2011-1.
- 馮立軍, 「21世紀以來國外亞洲海洋史研究的新進展-以英語學界的研究爲中心」, 『史學理論研究』, 2018-2.
- 河世鳳, 「解讀中國海洋史研究」, 『國家航海』 1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 河世鳳, 「近年來韓國海洋史研究概況」, 『海洋史研究』, 2016-1.
- 黃普基, 「民族海洋與海洋民族: 近代以來的韓國海洋史研究」, 『全球史評論』 第15輯, 2018-2.
- 吉尾寬 編,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アジア海域叢書 第4卷)』, 東京: 汲古書院, 2011.
- 山本英史 編, 『近世の海域世界と地方統合(東アジア海域叢書 第1卷)』, 東京: 汲古書院, 2010.
- 森平雅彦 編,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東アジア海域叢書 第14卷)』, 東京: 汲古書院, 2013.
- 徐仁範, 「朝鮮洋吏行の海路朝貢路と海神信仰-『燕行錄』の分析を通して」, 『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アジア海域叢書 第4卷)』, 東京: 汲古書

院, 2011.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13, 東京: 岩波書店, 1998.

伊東貴之,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海域交流史研究の現状と動向」, 『江南文化と日本: 資料・人的交流の再発見』, 京都: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International Symposium in Shanghai, 2012.3.

井上徹 編 『海域交流と政治権力の対応(東アジア海域叢書 第2巻)』, 東京: 汲古書院, 2011.

中島樂章・伊藤幸司 編 『寧波と博多(東アジア海域叢書 第11巻)』, 東京: 汲古書院, 2013.

Keiko Nagase-Reimer ed., *Copper in the Early Modern Sino-Japanese Trade*, Leiden: Brill, 2016.

Hang Xing,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1620-1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ABSTRACT

Trends and Tasks of East Asian Maritime History Studies in the Early Modern

Kim, Taek-kyung^{*}

This paper have reviewed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early modern East Asian maritime history, focusing on three keywords: sea, boundary, and city. The boom in maritime history research on East Asia is reflected in Korean academia as well. In the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f the research on East Asian maritime history has been greatly appreciated, and related research has been very active.

Until now, we have recognized the seas of 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as closed and perceived it negatively. If research on East Asian seas is carried out as actively as it is now, it could dispel the stereotype that the seas of East Asia have been closed in the early modern. At the same time, the view which has been negative about 'maritime prohibition' and 'seclusion' of the East Asian nations in the early modern would also face a change. As East Asian countries have formed their own identity through 'maritime prohibition' and 'seclusion' in the early modern, a sense of separ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maritime borders has begun to sprout. On the East Asian maritime border,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recently has overcome the situation that has been virtually barren through the empirical studies. Sea port cities were dynamic spaces to social groups and merchants that had crossed the national boundaries. I

^{*}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Yongin University.

am sure that the dynamism and complexity of East Asian maritime world in the early modern will be explained more clearly through the studies on the networks of the sea port cities in the future.

Key-words: East Asia, maritime history, sea, border, sea port city

논문투고일: 2019. 09. 14.

심사완료일: 2019. 10. 05.

게재확정일: 2019. 10. 07.